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during Couples Therapist Training

이미정(Mi Chung Lee)*

Institute for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Soongsi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of couples therapists' marital relationship during the couples therapist training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questions involved the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and their meanings, and how their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affect the development of couples therapists during couples therapist training. Five couples therapists identified their personal, relational, and professional growth experiences by half-structured in-depth interview. Giorgi analysis guidelines were used, and five major themes and 20 subthemes were derived. The essence of their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was "to establish a marital relationship as partners for growth and healing, and provide resources to become a wounded healer.". Five major themes included the motivation to become a couples therapist, the experiencing of personal growth, the experiencing of differentiated connection, the experiencing of professional growth, and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couples therapist. Exploration of the meanings of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during couples therapist training shows the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personal, relational, and professional growth experiences. The integration of these experiences leads to holistic development of couples therapis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 부부상담사(couples therapist), 부부상담사 수련과정(couples therapist training), 부부관계 경험(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I.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중심으로 한 가족해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부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즘과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을 형성하는 중심축이며,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부부뿐만

아니라 한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A. Giddens, 1993).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90년 이후 11%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에는 34%로 정점을 나타냈으며, 2011년 23%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2). 대법원이 발간한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33만 쌍이 결혼을

* Corresponding Author : Mi Chung Lee, Institute for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Principal Researcher. Soongsil University, Sangdo-dong, Dongjak-gu, Seoul 156-743, Korea, Tel: +82-2-828-7204, E-mail: mclee10@naver.com

했고 11만 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Chosun.com, 2013). 이혼 및 가족해체의 결과로 인해 부부와 자녀들이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 경제적 고통과 더불어 그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혼을 비롯한 부부갈등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 가족적 사안이 아닌 공적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예로 국내에서는 2008년도부터 가정법원의 이혼숙려제도를 통해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전 부부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부부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부부상담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부부상담과 관련된 이론이나 기법이 활발히 소개되고 있다(N. Park, 2005).

하지만 부부상담센터와 부부상담 전문가의 부족, 부부상담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부부갈등을 겪는 부부들에게 부부상담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부갈등 해결 및 예방적 차원에서도 부부상담이나 교육이 중요하며 앞으로 부부상담이 활성화되고 부부상담사 양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부상담사 양성이 필요한 현실에서 부부상담사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하여 부부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담에 있어 상담자 요인은 상담의 과정이나 효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적 요인이기 때문이다(B. Wampold, & G. Brown, 2006).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은 상담자의 전인적인 성숙을 포괄하고 있으며 전문가적인 자아와 개인적인 자아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상담자의 발달은 인지적 영역에 국한되기보다는 상담자의 개인 내적 특성, 정서적 특성, 주요 타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의 반성적이고 관계에 기반 한 내적인 성장을 통해 개인적인 삶과 전문가로서의 삶 사이의 일치성을 가짐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T. Skovholt & L. Jennings, 2004). 따라서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서 임상훈련의 경험, 학문적 연구의 노력, 개인적 삶의 경험을 통한 성숙의 세 요인이 균형과 통합을 이루며 발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중 개인적 삶의 경험에는 의미 있는 관계경험들, 개인의 신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애착이나 상실의 경험 등이 포함된다(T. Skovholt & M. Starkey, 2008). 또한 상담자의 삶에서의 의미 있는 관계경험들은 개인적인 가치와 삶의 철학을 형성하며 이러한 요소는 상담자의 임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C. Patterson, 1989). 그러므로 상담전문가로서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축으로 언급되고 있는 개인의 관계경험과 그 의미 인식을 통한 성숙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상담자 발달에서 관계경험에 대한 의미인식은 핵심요소로 간주된다.

부부상담은 개인 패러다임에 기반 하는 개인상담과는 달리 관계 패러다임에 기반 한 치료이기 때문에 부부상담사 자신

이 생활세계¹⁾에서 관계기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며 자기 성찰적 관계경험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세계적인 부부 가족치료 전문가인 S. Minuchin and M. Nicholas(1993)는 가족체계 중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나'로부터 '나와 너'의 부부관계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면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각자의 경험은 반향 되었다가 더욱 커져서 되돌아 오며 확장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부부관계란 혈연지간의 부모-자녀관계와는 달리 친밀감을 형성한 사회적 관계의 특수한 형태로써 마치 상담자-내담자가 맺게 되는 관계경험의 모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상담사의 경우 자신의 부부관계의 성찰과 그 의미인식이 부부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 Hess (1987)에 따르면 상담자는 발달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을 내담자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나간다고 했다. 그러므로 임상을 통한 경험적인 지식도 있지만 개인의 삶이 상담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천(T. Skovholt & M. Ronnestad, 1992)이 되므로 부부상담사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하여 부부상담사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국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결혼과 가족치료사(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MFT)들이 주로 부부상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상담사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대부분 MFT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1980년대부터 MFT의 전문성과 수련과정이 상담자 개인의 부부·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H. Aponte, 1994; M. Polson & R. Nida, 1996). 연구의 동향은 먼저 MFT들의 수련과 상담업무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G. Racusin, S. Abramowitz, and H. Herrera (1981)에 의하면 MFT의 상담업무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과 결혼사이의 경계가 혼돈되면서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으며 이러한 혼돈은 역전이의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생활이 상담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생활에서 정서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업무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하였다. M. Polson, F. Piercy, and R. Nida(1998)는 학업수행에 대한 기대와 MFT 프로그램의 높은 요구로 인해 가족과 보낼 시간과 에너지가 거의 없는 것이 MFT 수련생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밝혔고, MFT 수련생의 배우자들은 수련과정 첫째에 사회적 소외와 MFT 프로그램의 요구에 대한 분노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두 연구는 MFT의 수련과 상담업무

1) 생활세계(Lebenswelt, life-world): 주어진 특정 시간에 한 개인에 의해 경험된 감정, 사고, 자기 인식의 복합체를 말한다(B. Johnson, & L. Christensen, 2004).

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스트레스에만 국한된 연구여서 상담사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통합적인 탐색이 미흡하고, 그들의 부부관계 경험이 전문성에 미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연구의 또 다른 동향으로 MFT의 임상수련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면이 있음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S. Duncan & D. Duerden, 1990; J. Welcher & F. Piercy, 1986). C. Sori, J. Wetchler, R. Ray, and D. Niedner(1996)는 MFT 수련생과 배우자 모두가 MFT 대학원 경험이 부부·가족관계에 스트레스원이 되기보다는 향상원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수련생이 짧은 향상원으로는 정상적인 인생단계 과제임을 깨닫기, 부부와 가족 문제에서 자신의 부분 수용하기, 상호적인 역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의 주요한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하기 등이었고, 수련생의 배우자가 바라본 향상원은 수련생의 원가족 대처능력의 향상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MFT 수련생은 수련에서 배운 것의 많은 부분을 부부와 가족관계에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척도를 사용하여 주어진 항목에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부부관계의 경험의 상세한 내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들의 부부관계가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다루고 있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와 가족해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잇따르고 있어 현재까지 약 2000여 편에 달하는 부부상담 관련 논문들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N. Lee et al., 2011).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부상담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이 부부상담 모델 이론, 프로그램 개발, 상담효과, 부부만족도, 의사소통, 사례연구 등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G. Jeong & H. Shin, 2007; H. Shin, 2008). 그에 반해 부부상담사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특히 부부상담사 자신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상담자의 관계경험에 관한 연구 중에서 상담자의 부부관계를 다룬 연구는 극소수이다. 그 가운데 가족상담사의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S. Kim, 2010) 정량적 질문에서는 가족상담사의 상담전문성이 상담자의 부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개방형 질문에서는 상담수련 이후에 부부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상된 부분은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우자와의 긍정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 배우자의 원가족 이해, 관계증진을 위한 자신의 변화 시도, 부부간 친밀감 증가, 부부문제 해결능력 향상,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영향을 이해하게 된 점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상담전문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객관적 질문에서는 찾기 힘든 주관적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 질문보다는 부부관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질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상담전문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만 보았고 부부관계가 상담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질적 연구로서는 K. Park and K. Bang(2007)은 교육대학원 상담전공 교사들이 상담전공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었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행동을 어린 시절 성장과정과 연결하여 이해하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담전공 교육을 통한 교사들의 대인관계 변화 중 부부관계에 대한 경험은 매우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심층적인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국내 상담자 발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초점을 두거나 대가로서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 그쳤다. 상담 대가로서 이미 획득한 전반적인 상담자 특성에 초점을 맞춘 K. Kwon(2007)이나 M. Lee(2009)의 연구, 혹은 상담자 발달에 신앙 경험이 갖는 의미(H. An, 2012)와 같은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발달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상담사 발달과 부부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상담자의 개인적, 전문적인 발달이나 관계변화에 대해서는 차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부부상담사들의 부부관계 경험과 전문성 발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탐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부부상담사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내 상황에서 부부상담사의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되어 전문성 발달로 연결되는지를 드러내는 심층적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 부부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상담사의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으로써 부부상담사로서 부부관계 경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상담자 발달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부상담사의 전문성 발달과 수련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부부상담사 양성 및 부부상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 문제는 첫째,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은 부부상담사 발달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부부상담사의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본다. 이는 현상학적 연구가 인간 경험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기술적 연구방법으로서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서'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A. Omery, 1983). 현상학적 분석방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별적이고 상황적 맥락 속에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Giorgi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경험적인 현상학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Giorgi의 분석 방법(A. Giorgi, 1997)이 상황적 구조적 진술에서 연구 참여자 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전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적 진술로 통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D. Polkinghorn, 1983).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중에서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전형적 사례 선택(typical case selection)을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펼쳐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미세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했다(S. Park, K. Kim, K. Bang, Y. Oh, & E. Lim, 2012). 연구 참여자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부의 로맨틱한 사랑의 단계가 길게는 3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이마고 부부관계치료이론(H. Hend-

rix, 1988)에 근거하여 부부의 로맨틱한 사랑의 단계 이후에 오는 힘겨루기 단계를 경험한 결혼기간 5년 이상의, 서울, 경기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담전공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 부부상담사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한국부부상담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부부상담 수련과정²⁾을 수료했거나 과정 중으로, 평균연령은 48세, 평균 결혼기간은 21.4년, 부부상담 수련기간은 평균 5년이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자료 수집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하여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가정 없이 탐구하기 위하여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2명의 연구 참여자와 예비조사를 통하여 질문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로 면담은 1~2회 이루어졌고, 시간은 1회당 2~3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장소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 연락처,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의 자발성, 참여 의사 철회 가능, 인터뷰 녹음, 개인 정보의 보호, 추후 자료 폐기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서를 얻었다.

모든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청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고 이를 전사(transcribe)하여 작성된 축약록의 분량은 A4용지로 모두 270장이었다. 면담 후에는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태도에 관한 관찰 내용은 현장일지에, 연구자의 단상은 연구노트에 정리하였고,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 pant	gender	age	Education	religion	duration of marriage (years)	duration of training (years)	couples therapist training
1	F	48	Ph. D. candidate	protestant	24	5	completed
2	F	41	M.A.	protestant	9	5	completed
3	F	62	Ph. D. candidate	catholic	36	5	completed
4	M	48	Ph. D. candidate	protestant	17	3	in the process
5	F	46	Ph. D. candidate	catholic	21	7	completed

2) 부부상담 수련과정: 한국부부상담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부부상담전문가 교육과 임상수련과정은 다음과 같다. 2일간의 부부워크샵 참석, 2일간의 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 10주간의 부부상담전문가 인턴쉽 3학기, 3박4일간의 집단

상담, 115시간 이상의 부부상담실습, 3회 이상의 부부워크샵 보조치료사 실습을 수료함으로써 부부상담 수련과정을 이수하게 된다(ImagoKorea, 2011).

자와의 이메일 통신을 통한 보완적 자료도 활용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연구 질문에 따라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 부부상담사가 되게 된 동기,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의 의미에 관한 것과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부부상담에서의 경험,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에 미치는 영향, 부부상담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영역이었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에 따른 분석의 절차는 <Figure 1>과 같다(A. Giorgi & B. Giorgi, 2003, pp. 26-52). 먼저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축어록을 2~3차례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체적인 인식을 하고자 하였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가 표현하고자 한 경험의 의미를 참여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의 편견과 지식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의미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에 사선(/)을 그으며 의미 단위로 파악하여 구분하였다. 전체 참여자들로부터 나온 의미단위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지나치게 개별적인 상황에 근거한 의미단위는 제외하고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끼리는 모아서 최종적으로 197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심리학 적 관점을 가지고 의미단위 간 관련성을 찾아내고, 비교하며 동일한 의미단위를 모으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중심의미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시켰다. 이때 학문적인 용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상학적 관점에 의해 상식의 언어 혹은 참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환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도출된 중심의미를 구조적으로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성된 범주의 의미들을 원자료에 근거하여 참여자들 간에 다시 비교하는 순환적 분석과정을 거치면서 의미단위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20개의 소주제를 밝혀냈다. 이러한 소주제는 5명의 참여자에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경험의 본질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연구자는 총 5개의 대주제를 재편성하고 이를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을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맥락아래 재배열하였다. 이어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중심의미를 구조적으로 통합하여 두 개의 구조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구조는 도출된 구성요소별로 각 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적 진술

을 사례 별 비교를 통해 서술하는 개별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상황적 구조이고 두 번째 구조는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일반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황적 구조의 기술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본질적 의미인 일반적인 구조이다.

분석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취하기 위해 연구자의 경험이 연구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기반성(reflection)의 자세로 사고와 감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논점들을 반복적으로 객관화함으로써 선행 경험과의 괄호치기를 시도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부부상담사가 수련과정을 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이나 통찰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부는 상호역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과 선이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E. Guba and Y. Lincoln(1981)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4가지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기반 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결과물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member check). 둘째, 적용성은 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도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부부상담사에게 연구결과물을 보여주고 연구결과가 본인에게도 적용가능한지 검증받고 확인받았다(peer debriefing). 셋째, 일관성이란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분명한 자취(decision trail)'를 다른 연구자가 그대로 따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및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질적 연구 경험이 다수 있는 박사 3인과 상담전공 박사수료생 1인으로부터 자료 분석과 글쓰기 단계에서 지속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넷째,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편견적 시각에 의해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제시한 절차와 분석 과정에 의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충분히 드러내고자 하였고, 또한 연구자로서 갖고 있는 가정이나 선이해 등을 검토해보고 괄호치기하려고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다원화의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중요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료, 현장일지, 연구노트와 연구 참여자와의 이메일 통신을 활용하여 자료수집상의 삼각검증을 거쳤다.

Figure 1. Analysis Process According to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II.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수집된 참여자의 기술에 존재하는 의미를 기초로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절차에 따라 197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이 의미단위들에 대하여 현상학적인 반성과 상상의 변형(imaginative variation)의 과정을 거쳐서 관련 있는 의미단위들을 통합하여 20개의 소주제를 도출하였고, 이들 중 관련 있는 소주제들을 통합하여 5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 1에서는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 구조를, 연구결과 2에서는 상황적 구조의 기술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본질적 의미인 일반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1.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의 상황적 구조

본 절에서는 각 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적 진술을 사례별 비교를 통해 서술하는 개별적인 구조인 상황적 구조를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와 함께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진술은 5개의 대주제와 20개의 소주제에 따라 전개되었다. 5개의 대주제는 <부부상담사가 되게 된 동기>, <개인적인 성장 경험>, <분화된 연결감 경험>, <전문성 향상 경험>, <부부상담사 발달의 자원>이다. 범주화된 대주제와 소주제들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1) 부부상담사가 되게 된 동기

부부상담사가 되게 된 동기는 다양하였다. 결혼 전의 기대와는 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부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심이 생겨서, 부부갈등의 주제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하여 부부상담 공부를 시작하였다. 또한 관계에서의 갈등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과 관계에 대한 존재론적, 심리적 관심이 생겼고, 부부 집단상담을 인도하면서 흥미를 느끼거나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치유 되는 것을 보면서 상담에 대한 적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힘들었을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자신의 치유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돕는 상담사가 되고

Table 2. List of Major Themes and Subthemes for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During the Couples Therapist Training

category	major themes	subthemes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the motivation to become a couples therapist	search for the solution of marital conflict
		psychological-mindedness in human relationship
		discovering an aptitude for couples therapy
		desire to help others in pain
	the experiencing of personal growth	gaining an insight into the difference and wound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wound and marital relationship
		reconstructing spouse's image
development of couples therapist	the experiencing of differentiated connection	becoming a more relational person
		healthier marital relationship by acknowledging self-in-relation
		greater understanding of spouse
		becoming mutually supportive couples
	the experiencing of professional growth	experiencing connection through communication
		disappointment with unbalanced growth between couples
		gaining confidence in couples therapy
		enhancing capacity to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clients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couples therapist	applying marital experiences to couples therapy
		reflecting self and marital relationship through couples therapy
		recognizing countertransference
		recognizing the partnership for growth and healing
		becoming a "wounded healer"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부부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부부상담사가 되고자 하였다.

(1) 부부갈등의 해결방안을 탐색

참여자들은 결혼 후 잘 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배우자와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결혼생활에서 외로움과 허무감에 빠졌다. 또한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싸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부갈등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그래서 자신의 부부관계뿐 아니라 주변의 부부갈등에 대한 문제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심이 생겼고, 부부갈등에 대한 주제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상담 공부를 시작하였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정말 사랑 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이게 안 되나.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주변을 보니깐 다 나를 예전에 연애했던 얘기하면 다들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는데 부부로 사는 삶에서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한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참여자1>

그 때 부부관계가 안 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내가 어떤 학문을 통해서라도 남녀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갔죠. <참여자2>

(2) 인간관계에 대한 심리적인 관심

참여자들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심리적인 관심과 존재론적인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봤을 때에 자꾸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사람 마음이 왜 그럴까?... 자신도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관계 안에서 그런 존재론적인 어떤 질문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고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 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1>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씨앗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하고 왜 사람들이 싸움을

하게 되고 왜 항상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면서 살까? 호기심, 관심,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3>

(3) 부부상담에 대한 적성을 발견

부부집단상담을 인도하면서 흥미와 열의가 있었으며 집단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서 부부상담이 자신에게 맞다고 느끼게 되었다. 또한 평소에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편안하고 자신과 상담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상담에 대한 적성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 소장님이 자기네 부부 집단을 하겠다고 저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1년 동안은 했어요... 되게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나한테 맞다. 이게 맞고 집단원들도 시작부터 끝까지 떨어져 나가지를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재밌으니까. 그것이 최초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3>

**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많이 울고, 많이 치료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걸 보면서 아~ 내 안에 이렇게 상담하는 쪽에 은사가 있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4>

(4) 힘든 사람을 돕고 싶은 소망

자신이 힘들었을 때 편하게 말할 대상이 없었고 누군가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자신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유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상담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누군가 제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되게 바랐던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랬던 경험들이... 정말 말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었는데 대상이 없는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1>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상담사가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4>

2) 개인적인 성장 경험

수련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부부세미나에 적극 참석한 것

이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하여 참여자들은 부부의 서로 다름과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해 통찰하게 되면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았다. 이것을 부부가 서로 나누고 함께 알아가면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배우자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신을 수용하게 되어 개인적인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과 수용이 깊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편해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더 맺으려고 하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1) 서로의 다름과 상처를 통찰함

배우자와 함께 부부세미나에 적극 참석하여 자신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배우자의 어린 시절 상처를 알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부부간에 서로가 얻은 통찰과 치유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시에 부부의 서로 다름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과정이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부부세미나가 있을 때, 웬만하면 가서 같이 다른 부부들의 상황들도 보고,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깨닫고 그러려고 하구요. 남편이 최근에 (부부세미나에) 이를 참가했거든요. 또 본인이 많은 것을 알아차리고 그랬다고 얘기해줘서 그게 이제 감사한 것 같아요. <참여자2>

아내하고 그 (부부)세미나도 두 번 갔고... 부부가 서로에게 바라는 거... 가장 화가 났을 때 이런 작업하는 것을 통해서 아내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아내가 원하는 게 뭐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었고요. <참여자4>

(2) 어린 시절 경험과 부부관계 연관성을 인식함

자신과 배우자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미해결 과제를 이해하고 그것이 현재의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연관성을 통찰하게 되면서 자신과 배우자를 더욱 선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은 왜 성공을 향해서만 가야 되는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어때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되었는지... 이마고2(부부관계치료)는 확실

히 제가 우리 남편을 이해하는데 아주 선명했어요... 가계도도 너무 너무 비슷하고 이 사람 둘째라서 상처받은 자리도 너무 비슷하고 편애를 받은 것도 그렇고. 둘째라서 서러움도 그렇고. <참여자1>

제가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를 배우면서 우리 남편의 어린 시절에 상처 받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어린 시절 상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삶에 지금 일어났던 잘못들이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이제 내가 인지적으로 통찰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고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참여자3>

(3) 배우자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함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어린 시절 미해결 과제에서 왔으며 배우자도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리하여 배우자에게 요구를 덜하게 되며 그로 인해 서운해 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성장할 수 있었구나”라며 배우자가 바로 나의 치유의 자원을 가진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구나. 이러한 남편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재구성되구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만날 사람을 만났다. <참여자1>

내가 요구하고 있구나.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주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요구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요구를 안 하죠. 덜 하죠. <참여자5>

(4)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어감

수련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과 수용이 깊어져 갔다. 그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편해지고 따뜻해지며,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더 맺으려고 하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2) ‘이마고(imago)’란 라틴어로 ‘이미지’라는 뜻으로 어린 시절 주양육자들의 긍정적, 부정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진 무의식적 내면에 형성된 이미지이다. 여기서 ‘이마고’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인

간의 문제를 개인의 병리나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는 것에서 인간의 자원을 존재의 구성과 단절로 보는 관계론적 존재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근거하여 1980년대 하빌 헨드릭스에 의해 만들어진 부부관계치료 모델이다(H. Hendrix, 1988).

제가 더 성장해가고 제가 치유를 경험하고 더 치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더 관심 가지려고 그리고 더 이렇게 좀 더 관계 맺으려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참여자4>

제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커지니까... 내가 이제 특히 대인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존중감 그걸 갖고 대하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다툼이 뭐 별로 없고 그리고 좀 더 관계가 따뜻한 면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참여자3>

3) 분화된 연결감 경험

‘관계속의 자기’³⁾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편안해지고 부부관계에서도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공생에서 벗어나 분화된 존재로서 서로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고, 자신의 부부관계 패턴을 통찰하고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으로 부부갈등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수련과정에서 오는 어려움과 소진 가운데 있을 때 배우자의 배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힘을 얻고 배우자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호지지 하는 관계 속에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기표현이 가능해졌고 또 그것이 수용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면서 의사소통을 통한 연결감을 경험하고 친밀감을 회복하여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며 함께 성장해 가기도 하지만, 상담자의 성장에 비해 배우자의 성장이 더딘 것을 느낄 때는 부부간 불균형한 성장에 대한 아쉬움도 경험하고 있었다.

(1) ‘관계속의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 부부관계가 편해짐
수련과정에서 어린 시절 경험으로 인한 미해결 과제, 욕구, 그것이 현재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어서 ‘관계속의 자기’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자신에 대해서 편해지고 부부관계에서도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부부관계에서 분화해가는 가운데 배우자와 건강한 거리를 두게 되고 서로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다. 또한 이전에는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욕구도 편안하

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좀 더 다정다감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제가 상담공부하면서 남편과 시댁에 대한 원망을 거둬들이게 됐고,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거뒀지면서 관계가 편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점점 관계가 편해지니 부부관계도 더 편해지고 견고해지기 시작했고... 제가 저를 알게 되니까 투사가 거뒀 들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했던 이미지들이나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은 관계가 편해진 것들. 우리 부부관계에서는 그게 참 변화인 것 같아요. <참여자1>

부부상담사가 되어가는 시간들 속에서 내 안의 어려움 등을 발견하고 알아차려감에 따라 부부관계에서 조금은 덜 불안해지고 편안해지고 있어요... 우리 신랑이 내가 다그치지 않고 집착을 안 하고 내 스스로 내가 편해져서 편하게 다가가니까... <참여자2>

(2)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배우자의 미해결된 어린 시절 상처를 인식하고, 자신의 부부관계 패턴을 통찰하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부부갈등이 줄어들고 배우자에게 반응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함으로 부부관계가 개선되고 있었다.

남편은 왜 저렇게 성공에 목말라 있고 모든 걸 저러까. 우리 남편이 편애 당하고... 엄마와 형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무슨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는 것으로써... 더 잘함으로써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1>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왜 그랬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장구 안치고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반응 보이지 않고 또 반응을 보여야 할 때는 보이고 이것을 내가 조절하면서 사는 거죠. <참여자5>

(3) 상호 지지하는 부부가 되어 감

수련과정으로 인한 육체적 소진과 경제적 부담, 가사 일을 할 시간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배우자의 배려와 지지를 받으며 안정감을 지니고 상담수련을 받을 수 있어서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전에는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고 서로를 판단하던 부부가 자기 자신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상호지지 하는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3) ‘관계속의 자기(self-in-relation)’: J. Jordon(1997) 와 J. Surrey(1991)의 ‘관계속의 자기이론’에 근거하여 자기경험과 성격 발달의 기초로 분리, 개별성에서 관계, 상호성, 공감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자기는 관계를 통하여 조직하며 발달한다는 의미이다.

부부관계가 좋아지면서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먼저 깔아놔요. (웃음) 내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우리가 편해지니까 부부관계가 조금 나아지니까. 내 말을 듣기 전에 아들이 그렇게 하니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내가) 너무 어머니 서운하지 않게 해라... 혼자 사시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그거를 일단 얘기를 해주니까 부부가 편하고. <참여자2>

저를 다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수련 받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잔소리하지 않고 후원자가 돼 주고 그러는 게 너무 좋아요. 저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OO 1급 할 때까지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게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 놓고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참여자4>

(4) 의사소통을 통해 연결감을 경험함

의사소통을 할 때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기표현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이 수용 받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부부간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으로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동안 단혀있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배우자의 말이 들리면서 의사소통을 통해 연결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마음이 연결되어 배우자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자신 또한 치유되는 경험을 하면서 배우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에 대한 놀라운 치료적 힘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비난보다는 “감정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됨으로써 부부소통이 향상되었고 새로운 대화패턴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일단 아내 이야기가 들리니까 제가 아내한테 마음이 더 열린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아내한테 마음을 안 열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것도 알게 됐고, 제가 이제 마음도 열었고 아내 이야기가 들리니까 내가 치료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일단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가 행복한 부부다. 그 말이 아~ 이 말이구나. 부부관계가 좋으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구나. 관계가 좋으니까 안정감이 있고 그래요. <참여자4>

내가 감정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지만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당신이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그때 속에서 화가 났지만 참으면서 내가 힘들었다고 이러면서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게 됐어요.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 훨씬 부부가 소통이 많이 되고... <참여자3>

(5) 부부간 불균형한 성장에 대한 아쉬움

참여자들은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자신이 성장해가는 것에 비해 배우자가 더디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배우자에게 원하는 공감을 받지 못할 때 배우자의 그런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부부간에 불균형한 성장에 대한 답답함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수련과정 초기에는 자신만 노력하는 것 같아서 “손해”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아내 말이 들리고 제가 자라가면서 제 아내한테 조금 그런 거를 느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제 말을 받아주지 않고 좀 이렇게 쳐낸다... 공감을 해주면 될 텐데. 제가 요즘에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받아주면 될 텐데... “아~ 그래, 그랬구나”. 그럼 될 텐데 ... 제가 좀 답답하죠. <참여자4>

나만 손해 보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왜냐? 난 이렇게 투자하고 내 아픔을 알아 가는데 우리 남편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선까지 이걸 품고 가야 되나... <참여자2>

4) 전문성 향상 경험

부부관계에서 자기 인식과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했던 수련과정 초기에는 부부관계가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상담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부족했었다. 그러나 자신이 성장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배우자가 변화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면서 부부상담에도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부부관계 경험은 내담자의 경험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살아있는 자료가 되었고, 부부관계 경험을 부부상담에 활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부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부부관계를 성찰하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부부관계의 보편성을 보면서 자신의 부부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성장과 부부관계의 성장,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성장 사이에 상호호혜적 관계가 있음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역전이를 경험하며 이를 자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1) 부부상담에 자신감이 늘어남

수련과정 초기에는 부부관계가 편하지 않아서 부부상담에 자신감과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가 성장하고 부부관계 또한 편해지면서 부부상담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긍정적인 관계 변화가 내담자 부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부부상담에 자신감이 생겼

다. 이처럼 편해진 부부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이 부부상담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주고, 내담자 부부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넓어지며 부부상담이 즐겁다고 느껴졌다.

요즘엔 우리 부부관계도 초기보다는 더 편해지고 힘이 있고 좋아졌고 또 우리 남편 그 안 변할 것 같던 사람도 세미나로 인해 좋아지니까 너희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상담에서도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자체가 확신을 갖고 대하니까 상담에 있어서도 좀 더 힘이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1>

부부관계에서 오는 편안한 에너지가 부부상담 시간에도 이어져서...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신을 보게 되요... 부부상담에서 부부를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상담사인 내 마음의 깊이가 넓고 깊어짐을 알기에 부부상담 시간에 편안하고 유연하게, 부부상담 시간이 즐겁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참여자2>

(2) 내담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공감 능력이 증진됨
자신의 다양한 부부관계 경험들을 통해 내담자의 경험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가능해졌다. 또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자세를 취하고 역전이 반응을 덜하게 되며, 내담자의 부부갈등 해결을 돕고 싶은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왜 남편이 그러는지 왜 부인이 남편에게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지 수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더 공감이 되고 왜 그러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부부관계를 좋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지를 도와주고 싶죠. <참여자5>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에서 그들의 경험세계를 이해하는데 살아있는 자료가 돼요. 그들의 어떤 경험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 그들의 경험세계에서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의 부부갈등, 고부갈등, 시월드 갈등, 친정부모와의 갈등, 내적 갈등, 부모-자녀 갈등 등이 부부상담에서 나오는 모든 재료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죠. <참여자1>

(3) 부부관계 경험을 부부상담에 활용함

자신들이 경험한 부부관계 개선의 촉진요인을 부부상담에 활용하여 내담자들의 부부갈등 해결을 돕고 있었다. 참여자4는 자신이 아내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느끼면

서 아내가 생기가 돌고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자신도 행복을 느낀 경험을 상담에 활용했다. 그리하여 부부상담에서 부부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데 힘쓰고 있었다. 참여자5는 자신의 부부관계 패턴에 대한 이해가 생김으로 내담자의 부부관계 패턴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부관계가 부부상담에 토대가 되며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상담의 베이스”가 되고, 자신의 “상처가 부부상담의 교과서” 역할을 하며 부부관계 경험과 부부상담 사이에는 “상보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남편이 아내의 말이 들리기만 한다면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되어서, 부부상담을 하면서 배우자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부부를 돕고 있어요. <참여자4>

나의 부부관계 경험은 내가 부부상담에 적용할 어떤 경험의 실험의 장이 되기도 해요. 상담 현장에서 얻은 부부관계 노하우를 나의 부부관계에 적용하기도 하고, 나의 부부관계 경험의 노하우를 부부상담에 적용하기도 하는 서로 상보적인 의미를 가졌다고나 할까... 내 부부관계가 부부 상담에 기초가 되는구나. 내가 걸어왔던 길들이 아주 그냥 상담의 베이스가 된 거예요. <참여자3>

(4) 부부상담을 통해 자신과 부부관계를 성찰함

내담자 부부를 보면서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하기도 하고, “제가 먼저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라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등 자신의 부부관계를 성찰해보고 자신이 못 보던 부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내담자에게 제안한 것을 자신의 관계에도 적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관계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기도 하고, 부부 문제의 보편성을 보면서 자신의 부부문제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을 받고 있었다. 또한 부부상담에서 있었던 통찰을 배우자와 나눔으로써 부부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서양 격언인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라(Practice what you preach)”의 삶을 살고 있었다.

부부상담을 통해 저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한 번은 부부상담에서 그들의 맞섬과 오해와 갈등을 접하면서 그게 지난날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나는 현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도 그런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듯 부부상담을 통해 제 모습을 보기도 하고 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

나 반성하게 되고 내 삶에 적용해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1>

부부들의 역기능을 보면서 우리 부부관계의 문제가 더 잘 보이면서 극복하는 데에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내가 남편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갈등에 대해 내담자 남편의 피드백을 듣고 남편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내담자 특히 아내의 갈등 경험을 듣고 나의 문제의 보편성에 대해 위로가 되고 나만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아님을 알고 안도의 경험을 하게 된 적도 많아요. <참여자3>

저와 아내의 관계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있고, 아내에게 좀 더 잘하는 남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일단은 제가 부부관계가 갈등 중에 있거나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면 부부상담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다른 부부를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4>

(5) 역전이를 자각함

부부상담에서 과거 자신의 부부관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내담자 부부를 상담하게 될 때 역전이를 경험하며 이를 자각하게 되었다.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경험인 경우에는 불편한 감정이 들면서 빨리 종료하고 싶은 자신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역전이가 내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순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었다.

내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에 많이 투사되는 부분이 있고 역전이 현상이 있을 때도 있어요... 예로 아내를 무시하는 남자 내담자가 상담에 왔는데 너무 뻔뻔하게 느껴지고 싫은 감정이 들고 빨리 종료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역전이라는 자각을 하면서 나의 역전이가 내담자에게 더 이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때 그 순간을 잘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는 경험이 됐어요. <참여자3>

남편과 유사한 성향, 조금 무능력하고 이렇게 조금 부인에게 짐착하고 이제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도와주고 싶죠. <참여자5>

5) 부부상담사 발달의 자원

부부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결감을 느끼며, 믿음이 견고해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의식이 깊어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부부관계에서의 상처가 부부상담의 교과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먼저 앞서간 사람”으로서 타인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은 사명감을 지니게 되었다. 자신의 부부관계로 인한 상처를 극복한 경험으로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⁴⁾로서의 사명감을 느끼면서, 상담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행복과 보람을 누리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자원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1)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 의식이 생김

참여자들은 부부관계에서 “삶의 경험을 함께 하는, 더불어 사는 부부”로써 서로에 대해 이전보다 깊은 이해와 연결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부부를 성장과 치유를 위한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더 “안전하고 편안한” 부부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흥분되는 기쁨의 순간도, 냉담과 소원함으로 우울의 시기도, 오해와 갈등으로 좌절의 시기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낸 후 25년차를 사는 지금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생의 좋은 동반자 의식이 깊어졌어요... 저의 부부관계 경험은 결국 저를 성장시켰고 너그러움, 인내, 건담, 수용, 이해 등이 부부관계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이에요. <참여자1>

부부상담사로서 나의 부부관계를 볼 때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아지고 있고... 서로 노력하는 것을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참여자2>

(2)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로 서게 됨

부부관계에서의 상처가 부부상담에서 교과서 역할을 하고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지며 연결감과 연민이 생겼다. 또한 “먼저 앞서간 사람으로서 타인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은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부부관계를 통한 성장의 경험으로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부부상담사로서 살아가는 것에서 행복과 보람을 누리고 있었다.

4) 상처 입은 치유자: 어떤 역경에 처하고 그 역경을 극복할 경우에 같은 역경을 경험하는 타인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민감성과 기술을 갖게 된 사람을 말한다(H. Nouwen, 1972).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고 내가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더 잘 깨달아지고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리고 이해도 더 잘 되고 그 사람들의 부부관계도 더 잘 이해되고... <참여자5>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정도 훨씬 풍부해졌고 내가 열리게 됐고 또 그 상처를 통해서 타인하고 연결된 감정도 느끼게 되고 연민 같은 것도 생기고 상처를 통해서 깊은 사색도 많이 했죠. 내가 상처로 아파 봤기 때문에 누군가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내가 먼저 앞서간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앞서 가서 극복했던 것들로 인해서 도와주고 싶은 게 있어요. <참여자3>

2.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의 일반적 구조

본 절에서는 본질적인 일반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일반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황적 구조의 기술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인 일반적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2>와 같다.

참여자들이 부부상담사가 된 동기는 다양하였다. 자신의 부부갈등의 주체적인 해결안을 찾고자 하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인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부부상담에 대한 적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힘들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자신이 치유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는 등 다양한 경험들이 동기가 되었다.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을 하면서 상담자 자신

Figure 2. Structure of Marital Relationship Experiences During Couples Therapist Training

이 겪고 있는 상황과 문제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가 생겼고 부부의 서로의 다름과 상처를 통찰함으로써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어갔다. 그리고 어린 시절 경험과 현재 부부관계의 연관성을 인식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과 수용이 깊어졌고 그로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편해지고,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더 맺으려고 하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으로 되어갔다. ‘관계속의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부부관계가 더욱 편해지면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상호 지지 하는 부부가 되어갔다. 그리고 공생에서 벗어나 부부관계에서 분화해 가면서 의사소통을 통한 깊은 연결감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담자의 성장에 비해 배우자의 성장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미친 영향으로는 부부상담사의 개인적인 성장과 부부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한 자기 확신으로 부부상담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더욱 증진되었다. 부부상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더욱 깊어졌으며 자신의 부부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던 요인을 부부상담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부상담을 통해서 자신과 부부관계를 성찰하고 자신의 부부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개인적인 성장과 부부관계에서의 성장, 그리고 전문가적인 성장 사이에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부상담에서 자신의 부부관계 경험으로 인한 역전이를 경험하면서 역전이 자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도 하였다.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을 돌이켜보니 부부관계에서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의 의식이 생겼고, 부부관계의 성장 경험이 부부상담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게 되는 자원이 되었음을 깨달아 부부관계 경험의 의미인식과 성장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중요한 원천이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로서의 부부관계 맺어감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게 되는 자원이 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IV. 논의

본 연구는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명의 부부상담사와 심층면담을 하였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의 대주제와 20개의 소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로서의 부부관계 맺어감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게 되는 자원이 됨”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다양한 자기 발견의 경험을 통해 부부상담사가 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의 해결책을 찾아서 치유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활용하여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함,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심리적인 성향, 평소 관계 속에서 상담자 역할을 해 오음(B. Farber, I. Manevich, & E. Jesse-Saypol, 2005), 집단상담이 재미있었고, 자신이 경험한 치료효과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은 이타심(K. Kwon, 2007), 상담이 나와 맞다는 생각이 있었음(C. Hwang, J. Park, S. Yoo, & J. Kang, 2009) 등의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참여자들은 주어진 생활세계에서 피투된 존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투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만들어나가고 세계-내-존재로 거듭나서 지향성을 가지고 기투하고 건립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M. Heidegger, 1972). 즉,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활세계에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미세계를 바꾸어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로부터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세계로 나아가는 존재로서 생활세계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기도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부부상담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부상담사는 지속적으로 자기성찰을 하고 전문성을 고양하는 노력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부부상담사가 되게 된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관계속의 자기’와 배우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더욱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참여자들은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 부부의 서로의 다름과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해 통찰하게 되며,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상처와 미해결 과제가 현재 부부갈등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J. Oh & V. Minichiello, 2013). 부부가 서로의 통찰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배우자가 나의 치유의 자원을 가진 파트너임을 수용하게 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R. Brown, 1999; B. Byun & J. Oh, 2010).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은 개인 패러다임의 존재 방식에서 관계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더욱 관계지향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방법으로써 타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M. Buber(1923)의 ‘나-너(I-Thou)’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나-너’의 부부관계 안에서 배우자인 ‘너’의 고유한 현상학적인 세계에 대한 존중과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너’를 수용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부관계에서의 수용의 경험은 부부관계의 성장과 치유를 가져오며, 부부상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C. Rogers, 1992).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 개인의 성장이 저절로 부부관계의 성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부부에 대한 이해와 갈등해결을 원하는 부부상담의 경우 부부상담사는 상담에서 부부를 동시에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또한 서로의 어린 시절 상처와 그로 인해 발달된 방어기제와 성격이 현재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부부가 서로 공유하며, 자신들의 부부관계 패턴을 보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상담실에 함께 존재해야 한다. 또한 부부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를 수용하며 공감해 줄 때 두 사람간의 연결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부상담에서는 ‘나-너’의 관계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 두 사람사이에서도 형성될 수 있도록 ‘너’에 대한 의미인식을 부부상담자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셋째, 참여자들이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 주도적인 변화를 먼저 시도하였을 때 배우자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분화되면서 깊은 연결감을 경험하고 상호지지는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부부상담사들은 부부관계에 대해 의미가 재확립되고 상호협력 하는 가운데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생겼다. MFT 수련생들의 배우자들은 (C. Dahl, M. Jensen, & J. McCampbell, 2010) 수련생들의 지적인 성장에 실제적으로 자극을 받았고, 수련생들이 수련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지식을 공유했으며, 수련생이 부부와 가족에 대해 배우는 것이 그들의 가정과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수련생의 수련과정이나 전문성으로 인해 배우자까지 변하는 현상을 C. Dahl et al.(2010)은 나비효과(butterfly effect⁵⁾), S. Duncan and H. Goddard(1993)는 넘쳐흐름(work spill over⁶⁾)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수련을 통한 참여자들의 지식과 통찰이 부부관계 성장에 자원이 되어 그 배우자도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부부상

담사 개인의 성장은 부부사이에서 공명하며 더욱 확장되어 순환적으로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볼 때 부부상담사 발달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며 자기 발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넷째, 자신의 개인적 성장과 부부관계의 성장으로 인한 자기 확신으로 부부상담에 자신감이 생겼다. 부부관계 경험을 부부상담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한 부부상담을 통해서 자신과 부부관계를 성찰하기도 하면서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J. Kottler and G. Parr(2000)는 상담자의 현재 가족관계는 상담자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원이 되며, 상담자의 건강한 가족관계경험은 내담자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부부관계 성장경험이 부부상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치료적 관계를 맺는데 자원이 되었고, 내담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왔다. D. Cho(1998)에 의하면 상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상담자의 능력은 전문적 수련과 더불어 상담자로서의 인성적 자질, 일상생활상의 정서적 안정과 편안한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자신의 부부관계가 편해질수록 정서적 안정감이 생겨서 부부상담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역전이 반응을 덜 일으키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 J. Kottler and G. Parr(2000)는 임상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관계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부부상담에서 내담자를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면서 실제 자신의 부부갈등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부상담사들은 부부관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 자신들의 태도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적 유효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임상에 활용할 때 상담에 대한 확신이 더해짐으로써 치료적 효과의 증진과 전문성 향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부부상담사가 내담자와 유사한 경험이 있다하더라도 내담자의 경험에 대한 깊은 탐색 없이 자신의 선입견으로 내담자에 대해 추측하거나,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자기 감정을 찾아가기 전에 너무 이른 시점에서 공감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상담사는 내담자로부터 분화가 되어야 하며 현상학적 태도로 상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개인적인 성장과 부부관계의 성장,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성장 사이에 상호호혜적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는 J. Kottler(1999)와 T. Skovholt and M. Ronnestad (1992)가 주장한 것처럼 상담자의 가치관과 발달수준은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련과 상담 실체를 통해 변화하고, 상담자의 개인적 삶과 전문가로서의 삶은 상호호

5)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브라질에서의 작은 나비의 날개 짓이 미국 텍사스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Lorentz, E. N.)가 사용한 용어로,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C. Dahl et al., 2010).

6) 넘쳐흐름(work spill over): 직장에서 습득한 새로운 아이디어, 원리, 태도, 가치, 기술 등이 가정을 포함한 다른 환경으로 인지행동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Crouter, 1984).

해적인 역할을 하면서 상담자의 전인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호적인 관계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상담자의 부부관계 경험이 임상에서 치료적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부부관계 경험과 관련하여 역전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치료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J. Kottler and G. Parr(2000)는 자신의 가족 문제가 역전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맹점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적·관계적 이슈를 해결하고 역전이를 자각함으로써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부관계와 관련된 경험들이 부부상담을 할 때 역전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역전이에 대한 자각, 자기성찰, 자기분석과 슈퍼비전을 통하여 역전이가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부상담사 발달에 있어서 자신의 부부관계에 대한 심층적 통찰과 부부관계에서의 성장이 필요한 것은 부부관계 경험이 부부상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역전이를 일으켜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삶의 경험은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개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쳐서 상담자의 개인적, 관계적,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성장 사이에는 순환적이고 상호적 흐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로서의 삶과 개인적, 관계적인 삶이 일치성 있게 통합될 때 상담자의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부부상담사는 부부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성장이 필요하다(C. Rogers, 1992). 또한 자신의 관계에서의 미해결된 심리적 갈등으로 상담에서 역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역전이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겠다.

여섯째, 부부관계에서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의식이 생겼고 부부관계를 통한 성장의 경험은 이제 그들을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서게 하는 자원이 되었다.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의존적이고 비협력적인 수직적 부부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였고, 공생을 깨고 개별성에 대해 존중하며 서로의 성장과 치유를 위해 손을 내미는 관계가 되었다. 부부가 서로의 어린 시절 상처 치유를 위한 파트너임과 동시에 서로를 위한 치료사임을 인식하고(J. Oh, 2005) 서로의 성장과 치유를 돕는 협력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관계맺음을 하게 되었다. 부부상담사들은 자신과 부부관계의 성장 경험을 자산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돕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부부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자기성장의 기회로 삼아 수련 과정을 통해 개인적 성장과 더불어 자신의 부부관계의 통찰과 부부관계 치유로 말미암아 긍정적 부부관계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것이 부부상담에서 치료적 원천이 되어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확장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부관계 경험의 의미인식이 부부상담사로

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부부상담사들의 부부관계 경험은 그들을 상처입은 치유자로 서게 하는 기반이 되었고 부부상담사 발달에 자원이 되었다. V. Sinason (1999)은 “상담자는 자신이 가본 데까지만 내담자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하였다. 부부상담자 자신이 부부상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자신의 부부관계에서 추구하며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부부상담사의 개인적 자아와 전문가적 자아가 일치성 있게 통합되어진다고 하겠다. 그러할 때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으로서 내담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 이 생기고, 치료에 대한 확신으로 갈등에 있는 부부 내담자들을 버텨주는(containing) 역량이 커진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부부상담사의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과 그것이 부부상담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와 통합적인 구조를 제시한 첫 시도라는 점이다. 둘째,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 자신의 부부관계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부부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이 부부상담에서 치료적 효과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셋째, 부부관계에 대한 자기분석 및 수련 내용에 대한 자기실천을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 포함시킬 필요성과 역전이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부부상담사 수련과정과 상담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부부상담 수련생들에게 상담자 발달에서 개인적, 관계적, 전문가적 자아의 성장을 통합하는 모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부부상담사로서 임상경험과 더불어 개인적, 관계적 삶에서의 성장이 전인적 상담자 발달에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부부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균형 잡힌 조망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자가 현상학적 태도를 통해 연구자의 선입견과 선지식을 철저히 괄호치기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연구자 자신의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특정 부부상담 수련과정을 경험한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부부상담사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부부상담 이론에 따른 부부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부관계 경험과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살펴본다면 각 이론에 따른 부부관계 경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부부상담사 수련과정에서의 부부관계 경험을 상담자의 관점에서만 분석함으로써 배우자의 경험이 어떠하였는지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상담사의 배우자의 부부관계 경험을 함께 비교 분석하여 부부 양측 관

점에서의 탐색이 이루어질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An, H. M. (2012). *The meaning of faith experiences in counselor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ponte, H. J. (1994). How personal can training get?. *Journal of Marital & Family Therapy*, 20(1), 3-15.
- Brown, R. (1999). Oh, J. E.(2009). *Imago relationship theory: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practice*. Seoul: Hakjisa.
- Buber, M. (1923). Pyo, J. M. (2004). *Ich and Du*. Seoul: Moonye Press.
- Byun, B. S., & Oh, J. E. (201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hange in spouse image and perception of childhood wounds through Imago couple therapy. *Understanding People*, 31(1), 47-63.
- Cho, D. H. (1988). *The characteristics of counselor affecting the stay in counsel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Chosun.com Internet news. (2013). 330 Thousands married, 110 thousands divorced. Retrieved from <http://newschosun.com/svc/news/www/printContentNews.html?type=>. 2013. 10. 20
- Crouter, A. C. (1984). Participative work as an influence on human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5, 71-90.
- Dahl, C. M., Jensen, M. L., & McCampbell, J. L. (2010) A butterfly effect: The impact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training on student's spouses. *Journal of Psychology & Theology*, 38(1), 3-14.
- Duncan, S. F., & Duerden, D. S. (1990). Stressors and enhancers in the marital/family life of the family professional. *Family Relations*, 39(2), 211-215.
- Duncan, S. F., & Goddard, H. W. (1993). Stressors and enhancers in the marital/family life of family professionals and their spouses. *Family Relations*, 42(4), 434-441.
- Farber, B. A., Manevich, I., Metzger, J., & Saypol, E. (2005). Choosing psychotherapy as a career: Why did we cross that roa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8), 1009-1031.
- Giddens, A. (1993). Hwang, J. M., & Bae, E. J. (1997).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Seoul: Saemulgyul.
-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1.
- Giorgi, A., & Giorgi, B. (2003). Phenomenology. In S. Jonathan (Ed.), *Qualitative psychology: A practical guide to research method*. (pp. 26-52). London: Sage Publications.
- Guba, E., & Lincoln, Y.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 Heidegger, M. (1972). Lee, K. S. (2012). *Sein and Zeit*. Seoul: Kkachi.
- Hendrix, H. (1988, 2008). *Getting the love you want: A guide for couples*. 20th Anniversary ed. NY: Holt Paperbacks.
- Hess, A. K. (1987). Psychotherapy supervision: Stages, Buber and theory of relationship. *Profess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8, 251-259.
- Hwang, C. W., Park, J. A., Yoo, S. K., & Kang, J. Y. (2009). A qualitative study on graduate students' experiences in counseling psychology program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3), 1359-1382.
- ImagoKorea. (2011). *Couples therapist training course*. Retrieved from <http://imagokorea.org>.
- Jeong, G. Y., & Shin, H. C. (2007). The major theoretical models and current trends in couples 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1), 1-30.
- Johnson, B., & Christensen, L. (2004). *Educational research: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approaches* (2nd ed.). Boston: Pearson Education.
- Jordan, J. V. (1997). 'A relational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women's development', in J. V. Jordan (Ed) *Women's growth in diversity; more writings from the Stone Center* (pp. 9-24). New York: Guilford Press.
- Kim, S. J. (2010). *The effects of family therapists' specialty on their marital relationship and family's psychological health through their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ottler, J. A., & Parr, G. (2000). The family therapist's own family. *Family Journal*, 8(2), 143-148.
- Kwon, K-I. (2007). *Analysis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n master group counsel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H. (2009).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quality of Rhee Dongshick's therapeutic interven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N. O., Choi, S. M., Cho, H., Kwo, J. H., Oh, H. J., & Jung, J. S. (2011). Characteristics of clients visiting marital counseling center and client factors associated with premature termination of marital 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3), 543-575.
- Minuchin, S., & Nicholas, M. P. (1993). Oh, J. E. (2013). *Family healing: Strategies for hope and understanding*. Seoul: Hakjisa.
- Nouwen, H. (1972). Choi, W. J. (1999). *The wounded healer*. Seoul: Duranno.
- Oh, J. E. (2005). Impact of childhood wounds on couple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6(3), 1055-1070.
- Oh, J. E., & Minichiello, V. (2013). Psychosocial development in South Korean couples and its effects on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24, 228-245.
-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49-63.
- Park, K. A., & Bang, K. Y. (2007). School teachers' experiences of counselor education program a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 Qualitative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8(3), 1185-1204.
- Park, N. S. (2005). The therapeutic effect of couple's group therapy in couple's counseling and its impli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4), 1097-1118.
- Park, S-M., Kim, K. S., Bang, K. Y., Oh, Y. H., & Lim, E-M. (2012). *Counseling research process utilizing grounded theory approach*. Seoul: Hakjisa.
- Patterson, C. H. (1989). Valu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unseling and Values*, 33, 164-176.
- Polkinghorn, D. E. (1983). Kim, S. H. (2001). *Methodology for the human sciences : Systems of inquiry*. Seoul: Il-sinsa.
- Polson, M., & Nida, R. (1996). MFT trainee adjustment to program lifestyle stress: The TAPS scale.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8, 405-424.
- Polson, M., Piercy, F., & Nida, R. (1998). Program and trainee lifestyle stress. A survey of AAMFT student member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1), 95-112.
- Racusin, G. R., Abramowitz, S. L., & Herrera, H. R. (1981). Competing role demands of therapists' professional and marital liv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1), 103-117.
- Rogers, C. R. (1992).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0(6), 827-833.
- Shin, H. J. (2008). Current status of effectiveness studies in the field of marriage/family counsel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1), 277-294.
- Sinason, V. (1999). In defense of therapy for training. In C. Feltham (Ed.), *Controversie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ling*. London: Sage Publications.
- Skovholt, T. M., & Jennings, L. (2004). *Master therapists*. New York: Person Education, Inc.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505-515.
- Skovholt, T. M., & Starkey, M. (2008, July). *Epistemology legs of the practitioner's stool, practice, personal life*.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116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USA.
- Sori, C. F., Wetchler, J. L., Ray, R. E., & Niedner, D. M. (1996). The impact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graduate training programs on married students and their famili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3), 259-268.
- Statistics Korea. (2012). *Korean Social Trends*.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4/1/index.board?bmode=read&aSeq=270115.
- Surrey, J. L. (1991). 'The "self-in-relation": A theory of women's development', in J. V. Jordan, A. G. Kaplan, J. B. Miller, I. P. Stiver, & J. L. Surrey (Eds.). *Women's growth in connection: writings from Stone Center* (pp. 51-66). New York: Guilford

Press.

Wampold, B. E., & Brown, G. S. (2006). Estimating variability in outcomes attribute to therapists: A naturalistic study of outcomes in managed car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5), 914-923.

- ☐ 접수일 : 2013년 11월 15일
- ☐ 심사일 : 2014년 01월 07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01월 20일